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물살 됐어요”

개교 20주년 기념 ‘한국 전통의 날’ 열려



상해 포동 한국주말학교(교장 민명홍)는 4월 20일, 금사과학교(金苹果学校) 국제부 교정에서 2024학년도 ‘한국 전통의 날’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04년 학교 개교 이래 스물살이 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개교기념 행사로 가름했다.

‘한국전통의 날’은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국사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 문화와 놀이 등으로 학생들이 한국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4년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사회 한국인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두루 받았다.

한국 전통의 날 행사는 총 4부로 이루어졌다. 1부는 각 학년별 교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되새기며 만들기 활동, 퀴즈대회, 학부모 초청강연 등을 진행했다. 그 중 유치부는 저마다의 고운 손으로 종이를 오리고 붙여 청사초롱을 만들었고, 4학년은 연을 만들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하늘 높이 올려 보내기도 했다. 또한, 6학년은 역사관련 영상을 감상한 후 역사 퀴즈를 함께 풀었으며, 중등부에서는 학부모를 직접 초청해 역사 강의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강의를 마련했다.

2부는 운동장에서 야외 민속놀이를

하는 시간이다. 일주일 전에 교육을 받은 스무 명의 학부모들은 놀이의 운영자가 되어 윷놀이, 공기놀이, 구슬치기, 오재미, 투호, 비석치기, 꼬마야꼬마야 등 전통놀이를 하며 조상들과 부모 세대의 어린시절을 체험했다. 이 활동은 디지털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몸을 움직이며 전통 문화를 배우는 체험의 기회를,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놀고 대화하며 자녀들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의 기회를 선사했다.

3부에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율동을 하고 흩어지는 놀이)을 기획했다. 각 학년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대회를 열었으며,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 전 학년이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4부에서는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인들, 애국가 가사 외우기 등 국사 노래 부르기 대회 및 상품 증정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 개교 20주년 행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동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민속놀이들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다. 포동 한국주말학교의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임을 자각하고, 부모 세대와의 소통과 대화의 끈을 이어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명홍 포동 한국주말학교 교장은 “개교 이래 2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지역사회 교민들의 성원과 지지 덕이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꼭 필요한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는 상하이 포동지역의 한국어와 한국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 기관이다. 5



딱지치기



비석치기



윷놀이



오재미



팽이치기



윷놀이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18명, 중국법원에 일본정부 첫 기소

위안부 피해자 18명 모두 사망



중국 위안부 피해자 자녀 18명이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2년 동안 민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완아이화(万爱花)여사의 리라디(李拉弟,78세)씨는 그동안 수차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국 침략 전쟁 중 감금, 강간, 구타, 학대, 질병 감염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리 씨가 요구한 정신적 위로금은 200만 위안(약 3억 8060만 원)이다.

리씨는 이번에 18명의 위안부 피해자 자녀들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과거 1992년 중국 위안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1995년 8월 7일 일본 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렸다. 일본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법정에서 수십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법원은 “역사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은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십 수년간의 소송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하면서 시각을 달리했다. 지난 1982년부터 중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장 많은 조사를 한 장쌍빙(张双兵)작가가 이번 소송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 피해자 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지만 한국처럼 중국 자국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안타깝게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BJFEZ

대표번호 : (051) 979-5000